

독일 vs 브라질 (9일 오전 5시)



뮐러

루이스

최고 수문장 자리 노리는 노이어 vs 세자르 대결

남미나, 유럽이나. 2014 브라질월드컵 4강 대진은 양대 '축구 대륙'의 자존심 대결로 요약된다. 9일(한국시간)부터 이틀간 대회 4강전 두 경기가 잇따라 치러진다. 결승 문턱까지 오른 국가는 개 최국 브라질과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앞세운 아르헨티나, '영원한 4강' 독일, 지난 대회 준우승 팀 네덜란드다. 세계 축구의 두 '큰 집'인 남미와 유럽 대륙의 강자들이 두 팀씩 준결승에 올랐다. 4 강전은 공교롭게도 남미 팀과 유럽 팀의 맞대결로 짜였다.

◇브라질-독일(9일 오전 5시·벨루오리존치 미네 이랑 주경기장)=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는 '우 승후보 0순위' 브라질과 '영원한 우승후보' 독일이 결승 대진의 한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전력만 놓고 보면 브라질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 는 경기지만 네이마르(바르셀로나)의 부상이라는 돌 발 변수가 생겨 예측은 의미가 없어졌다. 물론 헨크 (제니트), 오스카르(첼시) 등이 버틴 공격진의 위용 은 여전히 늠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 역할 을 할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 다. 독일은 포르투갈(4-0 승)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냉정하고 가치없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 를 거머쥐는 '전차군단'의 위용을 좀처럼 뽐내지 못 했다. 그러나 지난 대회까지 3개 대회 연속으로 4강 에 오른 '구력'은 그대롭다. 어찌됐건 어느 때처럼 4 강행에 성공했다. 독일은 사미 케디라(레알 마드리드)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바이에른 뮌헨)라는 세계 최고의 중 앙 미드필더 2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상 여 파로 체력이 정상아 아니라는 게 약점이다. 다만, 믿 을 수 없는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 마누엘 노 이어(바이에른 뮌헨)의 활약 여부가 독일 승리의 관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력 vs 화력-철벽 vs 철벽... 결승티켓 '예측불허'

핵폭탄 '메시' vs 쾌속 질주 '로번'...최고 골잡이 진검 승부

◇네덜란드-아르헨티나(10일 오전 5시·상파울 루 코린치앙스 경기장)=뛰어난 소총수들이 즐비한 네덜란드와 '핵폭탄'급 파괴력을 자랑하는 메시가 버틴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이다. 메시는 지금까지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3위에 올라있다. 아르헨티나 득점(7골)의 대부분이 그의 발끝에서 나왔다.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약점으로 지목 되지만 결국 아르헨티나를 4강까지 올려놓은 것은 그의 재능 덕분이다. 메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 지만 메시 정도의 선수라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상 하다. 벨기에전 결승골을 뽑아낸 곤살로 이과인(나 폴리) 등 동료의 컨디션이 살아난다면 메시의 플레 이는 한층 더 매서워질 수 있다. 만약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꺾는다면 아르헨티 나의 '양속'인 브라질 축구의 성지 마라카낭 경기장 에서 우승컵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메시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뛰어넘는 존

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 로 빈 판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슬레이 스네 이더르(갈라타사라이) 등 뛰어난 소총수들을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네덜란드는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12 골을 넣었다. 40분마다 1골씩 터뜨린 셈이다.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득점원이 다양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로번과 판페르시가 3골씩을 책임 졌고 '특급 조커' 뎀프리스 데파이(에인트호번)가 2골 을 해결했다. 로번은 호주와의 조별리그 2차전 이후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신속한 드리블로 경기장을 전방위적 으로 누비면서 네덜란드 공격의 대부분에 이바지하 고 있다. 최전방에서 로번과 호흡을 맞춘 로빈 판페르시(맨 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회 초반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로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메시



로번

아르헨티나 vs 네덜란드 (10일 오전 5시)



'꿈을 빼앗긴 사나이' 네이마르

콜롬비아전서 전치 4주 척추 골절상...월드컵 중도 하차

브라질의 축구스타 네이마르(바르셀로 나)가 월드컵 중도 하차에 대한 진한 아쉬 움을 나타냈다. 네이마르는 6일(한국시간) 브라질축구 협회를 통해 "월드컵 결승에서 뛰고 싶었 던 나의 꿈이 도둑맞았다"고 허탈해했다. 네이마르는 지난 5일 열린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후반 42분 상대 수비수 후안 카밀로 수니가(나폴리)의 무릎에 허리 부 분을 맞았다. 그대로 교체된 네이마르는 척 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에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생 에 첫 월드컵을 부상으로 끝내게 됐다. 네이마르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동료들이 나 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고, 이는 실현될 것"이라며 브라질 대표팀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네이마르의 기대와 달리 브라질의 상황 은 썩 좋지 못한 편이다. 공격수인 네이마 르뿐만 아니라 주전 중앙 수비수인 치아 구 시우바(파리 생제르맹)도 엘로카드 누

적으로 독일과의 4강전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8강전 스코어 보드
프랑스 0:1 독일
브라질 2:1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1:0 벨기에
네덜란드 0:0(4:3) 코스타리카 승부차기

대학 최고 공사 뽑는다

광주여대, 11일까지 전국 양궁선수권

광주에서 전국 대학 최고의 공사를 뽑 는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8일부 터 11일까지 나흘간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에서 '광주여대 총장배 제17회 한국대학 양궁선수권대회'를 연다. 전국 18개 대학교 총 150여명의 공사들이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총 8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또 덴마크·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 등 4개국 선수들도 참가 해 대학스포츠 친선·교류의 장이 된다.

경기 방식도 올림픽·아시안게임과는 달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채택한 표적 중 앙을 맞추는 아카데미라운드로 진행, 긴 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광주에서 열리 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치러 지는 모의고사 성격의 대회인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올해 17회째인 한국대학양궁대회는 대 학의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육성, 올림픽 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된 우수 선수는 광주여대를 졸업한 기보배(26·광주시청)를 비롯해 현 국가 대표인 임동현·진재왕·장해진 등이 있 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참가 선수들 이 아무런 불편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대학양궁 한마당 축제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효주, 상금 4억원 돌파 KLPGA 금호타이어 오픈 우승

김효주(19·롯데)가 2014시즌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시즌 상금 4억원을 돌파했다. 김효주는 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포 인트 컨트리클럽(파72·6111야드)에서 열 린 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 언더파 69타를 기록,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6언더파 210타로 준우 승한 고진영(19·넵스)에 무려 7타를 앞섰 다. 지난달 22일 끝난 한국여자오픈에 이

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는 우승 상금 1억원을 더해 시즌 상금 4억 5938만원으로 상금 부문 선두를 질주했 다. 이미 2라운드까지 2위에 무려 6타 앞 서 있던 김효주는 이날 4번 홀(파3)까지 3 타를 더 줄이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 혀다. 6번 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했지 만 이때도 2위와 격차가 5타였을 정도로 이렇다 할 위기가 없는 편안한 우승이었 다. 김효주는 9번과 10번 홀에서 다시 연 달아 버디를 넣는 등 3라운드 내내 2위와

격차를 5타 이상으로 유지한 채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개인 통산으 로는 KLPGA 투어에서 4승째다. 이 가 운데 2012년 롯데마트오픈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것이다. 이민영(22), 정 희원(23·파인테크닉스)이 나란히 5언더 파 211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2012년 메이저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챔피언십 우승자 평산산(중 국)은 3언더파 213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